

아버지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사랑받는 법.

오늘 밥다다가 왜 특별히 왔겠느냐? 오늘 밥다다는 너희 제2의 외국인 자녀들과 진심의 대화를 나누려고 특별히 왔다. 바바는 너희와 의사교환을 하려고 왔다. 자녀인 너희들 모두 먼 데서 마두반에 왔다. 그러므로 마두반의 아버지는 여기에 온 너희 자녀들 모두에게 지식의 대화라는 진심 어린 특별 환대를 베풀려고 왔다. 오늘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혹여 너희들 중 누구 하나라도 뭔가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않은지 들어보려고 특별히 왔다. 너희들과 아버지의 만남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우리는 쉽게 서로를 만나고 너희는 쉽게 소개받았기 때문에, 또 이 길이 아주 쉽기 때문에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지? 그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너희들 중 일부가 그걸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너희들은 이제껏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보물들에 대한 열쇠를 언제든 너희 각자가 원할 때마다 쓰는 방법을 안다. 뭔가를 하는 올바른 방식을 알 때는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의 상태는 어떠하냐?

너희들 모두 날아다니고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최고로 높은 아버지의, 오랫동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들이 되었으니 걸어다닐 필요가 왜 있느냐? 날아야 한다. 길을 따라 걸을 때는 어디선가 장애물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때는 방해물이 없다. 너희들 모두 날고 있는 새들이다. 지식과 요가의 날개는 너희가 아주 잘 날게 만들고 있다. 날아다니는 동안에는 너희가 지치지 않지? 너희들 모두 “지치지 말 지어다”라는 축복을 받았지?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저 뭔가를 경험하고 너희의 경험을 나누기만 해라. 너희의 경험을 나누기는 아주 쉽다. 그저 자기가 경험한 뭔가를 공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매우 쉽다. 자기의 관계들에 대한 뭔가를 나누는 일이 어려울 리 없다. 너희는 그저 두 가지만 나누면 된다.

너희 가족에 대해서, 즉 너희들의 관계에 관해서 뭔가를 나눠야 한다. 두 번째는 너희의 성취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이 명량한 것을 본다. 그러나 한 분에게만 끌리는 한결같은 단계를 갖지 못하고 너희는 때때로 어떤 다른 달콤한 형태에 이끌리느냐? 너희들 모두 한결같으며 안정되었느냐? 너희는 애착의 정복자이며 기억의 화신이 되었느냐? 기타의 시대가 이제 끝에 이르렀다. 너희들 모두 이제 지식의 보상을 경험하는 시기로 들어서지 않았느냐? 기억의 화신이 되는 것이 곧 지식의 보상이다. 이처럼 너희들의 노력 시기는 이제 끝이 났다.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 본연의 형태에 속한다고 하는 그 미덕들을 너희가 전부 다 끊임없이 경험하느냐? 너희가 원할 때는 언제든 희열의 화신이 되고, 또 언제든 원할 때는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느냐? 원하는 동안 너희가 원하는 형태가 무엇이든 그 안에 안정해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그 단계에 안정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그 단계에 있지? 아버지의 미덕들이 자녀들의 미덕이, 아버지의 과업이 자녀들의 과제가, 아버지의 단계가 자녀들의 단계가 되게 해라. 이를 두고 합류시대의 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보상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노력가들이냐? 너희는 성취의 화신들이냐? 너희의 언어인, “나는 아직 성취해야 한다, 나는 성취할 수가 없다, 어찌해야 성취할 수 있을까?”가 아직까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 너희들이 하루는 하늘에 있다가 그 다음날은 땅 위에 있는 등 오르락 내리락하지는 않겠지? 너희가 오늘은 의문부호를 가졌다가 내일은 마침표를 찍지는 않지? 한결같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이 완성된 기분을 느낀다는 뜻이다. 기분이 끊임없이 변하게 놔두지 마라. 서툰 리전에서 밥다다는 일부 자녀들의 기분이 무척 심하게 변하는 걸 본다. 때때로 그들은 경탄하는 기분이다가 때로는 의혹을 품은 기분이 되고, 가끔은 혼란된 기분에 휩싸인다. 너희들이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고 더러는 긴장 속에 있는 그네를 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마두반을 떠날 때는 너희 각자의 보상의 형태가 되어라.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계속 노력해야 하겠느냐?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되어라. 아버지가 한번이라도 기분이 나빠지는 때가 있느냐?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같아져야 한다. 너희는 주인들이 아니냐? 주인인 너희들은 지금쯤은 다 어른이 되었어야 한다. 너희들의 불평이 이제 다 끝났느냐? 사실 상황이 사소한 것일 때도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에 관해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큼직한 문제로 만든다. 상황에 너희의 생각이라는 호의를 베풀으로써 작았던 그것이 커진다. 너희의 생각을 호의로 베풀지 마라. “그 일이 왜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 묻지 마라. 시험지가 오면 너희는 그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지가 왜 왔는지 의심하는 일이 있느냐? 무엇이 낭비이며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데 딱 1초만 쓰고, 그걸 1초에 끝내라. 반 사이클 동안 모든 낭비를 쓰

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쓰레기통은 아주 크다. 변호사가 되지 말고 판사가 되라. 변호사는 작은 사건을 크게 만든다. 판사는 “네” 또는 “아니오”의 판단을 1초 이내에 내린다. 변호사가 되면 너희는 검은 색 법복을 입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미덕인가? 이것은 1초의 판단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만약 그것이 아버지의 미덕인 경우엔 ‘최고’의 계좌에 집어넣어라. 밥다다는 너희들의 앞에 있는 본보기다. 본 따는 것은 곧 따른다는 뜻이다. 너희가 새 길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너희는 심지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그저 단순히 아버지가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형태가 되기만 해라. 해외에서 온 너희들 모두 100% 보상을 받고 있느냐? 합류시대의 보상은 아버지와 같아지는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의 보상은 신인의 지위다. 그러한즉, 너희 모두 아버지와 대등해져서 한동안 아버지와 더불어 그 단계에 앉아 있는 것을 경험할 것이 아니냐? 옥좌에 앉는 왕은 거기에 당분간은 앉아 있지 않겠느냐? 1분간만 앉아 있다가 바로 다음 순간 거기서 내려오지는 않는다. 합류시대의 보상은 아버지와 같아지는 단계인데, 이는 즉 완전한 단계의 옥좌에 앉는다는 뜻이다. 너희는 단지 보상을 획득해야 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획득해야 한다. 이제는 너희 자신을 오랫동안, 즉 평생 동안 그러한 산스카르로 채워야 한다. 너희가 그 단계를 단 몇 분간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이어야 한다. 너희들의 삶은 천사의 삶이다. 너희들의 삶은 요기의 삶이다. 너희들의 삶은 쉬운 삶이다. “삶”이란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다. 한순간에 태어나서 바로 그 다음 순간 죽는다는 뜻이 아니며, 그런 것은 “일생”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너희가 단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만 성취했느냐? 어떤 보상을 성취했느냐? 아버지의 삶과 대등한 삶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노력해야 하겠느냐? 반 사이클 동안 너희는 온갖 종류의 모든 노력을 해왔다. 참으로 많은 노고와 신봉이 있었고 가정의 길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합류시대는 사랑의 시대다. 그것은 힘들게 애쓰는 시대가 아닌, 만남을 축하하는 시대다. 그것은 나방들이 불꽃에 합쳐지는 시대다. 너희는 노고에 관해 말하지만, 사실 노고는 없다! 아이가 되는 데 노력이 드느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받느냐, 아니면 노력으로 얻느냐? 아이는 머리 위의 왕관이며 아이는 가정의 장식이다. 자녀인 너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래서 너희는 주인이다. 그러니 주인인 너희들이 왜 아래로 내려오느냐? 너희의 이름이 얼마나 고결한지 인식하였느냐? 너희의 이름은 참으로 드높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름은 너희의 과업과 동일하다. 고귀한 너희 단계에 아버지와 함께 변함없이 머물러라.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자리다. 너희가 왜 너희의 장소를 떠나느냐? 진정한 너희의 장소를 떠나는 것은 이리저리 여러 곳을 배회하며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편안하게 앉아 있어라! 도취감을 갖고 앉아 있어라! 권리를 갖고 앉아라! 그러지를 않고 너희는 내려와서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라 묻는다. 그러기에 왜 내려와서 무거움을 경험하느냐? 머리 위에 짐을 이고 있지 마라.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는 너희가 머리 위에 얹힌 무게를 경험한다. 너희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이걸 해야 해”라 생각한다. 너희가 뭔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너희의 이름이 사용될 뿐이며,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냐? 얼마 전에 너희가 장난감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제 스스로 움직였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이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느냐? 과학이 뭔가 일하도록 만들 수 있거늘, 아버지가 너희들이 일하게 만들 수 없겠느냐? 아버지는 그저 너희들의 이름을 영광되게 빛내기 위해 너희 자녀들을 그의 도구로 만들뿐인데,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은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춤추고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아버지는 너희의 짐을 다 가져가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다니느냐?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는 너희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너희 자신을 도구라 여기며 발전소와 연결되어 앉아만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라. 그 장난감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너희의 입이 일하게끔 만들 수 없겠느냐? 너희의 지각으로 계획이 세워질 수 없겠느냐? 너희가 “어떻게?”라고 묻는 순간 너희들의 전선은 고무로 절연처리가 된다. 그러면 고무 피복으로 절연된 탓에 너희는 연결될 수 없어서 즉각적인 결실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지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모르겠어!”라 한다. 아버지가 너희를 도구로 만들었으니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딘가에 단지 예닐곱 명밖에 없으면, 다른 데로 가서 더 많은 수가 나오게 해라! 왜 낙담하느냐? 그러지 말고 어디든 순회여행을 하며 돌아다녀라. 가까운 데 있는 센터들에 가라, 너희 주변에 큰 지역이 있다. 어딘가에서 단 8명이 나온다 해도 그건 작지 않은 일이다. 어딘가 구석에 숨겨져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칭송해 노래 부를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도구인 영혼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 축복해주지 않느냐? 어딘가에서 보석이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너희

는 다른 어딘가에 가서 하나를 더 나오게 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를 내버려두겠느냐? 그러면 그 영혼은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곳에서 발전을 도모해라. 지금 현재 너희들은 세계의 한쪽 구석만 겨우 처리했다. 숲은 아주 크고 사냥감이 아직도 무척 많다. 그런데 너희는 왜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느냐?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의 지각이 쓰레기로 가득할 때는 너희가 터칭을 받을 수 없고 너희의 식별력이 작동되지 않는다. 뭔가 사물이 더 깨끗할수록 그것이 무엇인지 더 뚜렷이 인식될 수 있다. “왜?” 와 “무엇이?”라는 의문들 때문에 너희들의 식별하는 힘과 터칭 받을 수 있는 힘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지치거나 낙담한다. 너희가 어디에 있었던 거기에 숨겨져 있던 보석이 틀림없이 나왔는데, 애초에 너희가 거기에 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장소는 한 군데도 없다. 일부 장소에서는 상속자들이 나왔으며 다른 장소에서는 백성들이 나왔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나왔다. 모두 다 필요하다. 모든 이가 다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백성들도 역시 필요하다.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너희 도구인 자녀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왕실의 가문만 만들고 바바가 백성들을 창조해야겠느냐? 양쪽 모두 창조되어야 한다. 너희 자신을 그저 두 가지로만 검토해봐라. 첫째, 너희의 선이 뚜렷하냐? 두 번째로는 너희가 행동수칙의 선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OK이면 너희는 결코 낙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와 양호하게 연결된 자들과 도구가 된 자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아버지와만 연결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가족과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너희가 아버지와 연결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에게서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면 너희가 그 밖의 또 누구와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단지 아버지하고 뿐이나? 왕국이란 가족과 연결된다는 뜻이다. 너희는 단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자격증을 따야 한다.

1. 아버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합격증을 받는다는 뜻이다. 2.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한다는 것은 너희가 신성한 가족에게서 충족감의 증서를 받는다는 뜻이다. 3. 너희가 제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너희 마음이 충족되어 있다는 뜻이다. 마음속에 혼동이 없게 해라. 너희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지 마라. 제 스스로를 좋아한다는 것은 너희 마음에 충족감이라는 자격증을 가진다는 뜻이다. 너희에게는 이 세 증서가 다 필요하다. 트리무르티가 있듯이, 너희에게도 이 트리무르티 증서가 필요하다. 증서 두 개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셋 모두 다 가져야 한다. 너희들 중 일부는 너희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으며 아버지에게 만족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만족하고 너희가 제 스스로에게 만족하면 가족이 너희에게 만족하지 않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가족이 너희에게 만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가지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존중하고 존중받아라.” 이 레코드판을 밤낮으로 계속 틀어라. 어떤 이가 어떻든 너희는 공여자가 되어 계속해서 줘야 한다. 어떤 이가 뭔가를 보답으로 돌려주든 말든 너희는 그저 계속 줘야 하며, 이에 이타적이 되어라. “내가 이 만큼을 줬는데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되잖지 않았다. 나는 백 번이나 줬는데 상대방은 단 한 번도 뭘 준 적이 없다.” 이것에서 이타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그러면 가족이 오를은 아니라도 내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만족할 것이다. 너희들의 자선의 계좌에 계속 쌓일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축적한 것의 결실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아버지는 대단히 순진하다. 아버지가 누구를 보든 그들 각각이 전체에서 최고로 보인다! 바바 눈에는 아무도 좋지 않게 보이지 않는다. 판다바들 각자와 샥티들 각자가 바로 다음 사람보다 앞서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주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한다”는 말을 기억해라. 너희가 무엇이든 어떠하든, 너희의 진실성과 정직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자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너희 마음의 지시를 따르지 마라. 뭔가가 너희의 기호에 맞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너희 자신을 좋아하는 쉬운 방법은 슈퍼마트의 선 안에 머무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생각도 역시 무엇이든 슈퍼마트의 선 안에서 해라.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도 무엇이든 역시 슈퍼마트의 선 안에서 해라. 그러면 너희가 끊임없이 제 자신에 대해 만족할 것이고 남들도 역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의 작은 손톱 끝조차 슈퍼마트의 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라.

밥다다는 너희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너희 생각 속에 얼마나 대단한 결의가 있는지 안다. 단지 너희가 시시때때로 약간 예민해지는 것 뿐이다. 예민해지면 너희는 놀이를 하며 말썽을 일으킨다. 사랑은 너

희가 남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티켓이다. 만일 사랑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표 없이 어떻게 여기에 도달하겠느냐? 이 표가 너희를 마두반의 주민으로 만든다. 그것은 또 너희가 어디서나 봉사하는 도구로 만든다. 밥다다는 이미 너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너희가 여기서 한 약속을 이미 지켰으니 계속해서 확장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수립을 수행했다. 자아발전과 봉사에서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면 그때는 발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지내왔고 현재 집회의 일부로 처신하고 있는 자들의 특별함을 바바는 이미 봤다. 이것 역시 좋은 변화다. 너희는 독립해서 살았고 현재 다른 이들 대여섯 명과 살고 있으면서 너희의 산스카르를 그들과 조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보답이다. 판다바 바반과 삭티 바반이 성공하는 것도 역시 특별함이다. 밥다다는 이 보답을 보며 기쁘다. 너희들은 또 경제적이고 한 분에게만 속하는 보답도 역시 했다. 너희 수입의 절반을 몸의 생계를 위해 쓰고 나머지 절반을 봉사를 위해 쓰는 것도 역시 너희들의 훌륭한 창안이다. 이처럼 너희는 2중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얼마를 벌든 너희는 그것을 몸 또는 봉사를 위해서 쓴다. 너희가 돈을 벌고 그것을 쓰지만 여기서는 은행의 예금 잔고에 아무것도 축적하지 못하고, 미래에 축적한다. 너희들의 지각은 자유롭다, 그렇지? 너희는 지각을 받아서 봉사를 위해 쓴다, 너희들은 태평한 황제들이다. 삭티들과 판다바들, 양쪽에 경주가 있다. 너희들의 불꽃이 점화되자마자 너희는 가서 남들의 불꽃을 점화한다.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목표를 지녀왔다. 바라트에서 그들은 손이 나오게 하느라 노력하는 반면, 해외에서 너희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손들을 쉽게 찾는다. 이것도 역시 축복이다. 이 승강기의 선물은 나중에 오는 자들이 받는 선물이다. 여기에 살고 있는 자들은 굴레를 끊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너희들의 굴레는 이미 끊어져 있다. 그러니 이것이 승강기 아니냐? 단지 너희 마음의 굴레가 없는지만 분명히 확인해라. 앗차.

축 복: 한결같이 자아존중에 안정해 있으면서 겸손함의 단계로 모든 이를 존중함으로써, 존중받을 가치와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어라.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 곧 너희들의 자아존중이다. 너희의 자아존중에 안정해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가 겸손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이에게서 계속 존경받을 것이다. 존경해 달라고 청해서는 너희가 존경받을 수 없다. 하지만 존중함으로써, 너희의 자아존중의 단계에 안정해 머물며 존경에 대한 일체의 욕구를 버림으로써 너희는 모든 이에게서 존경받을 가치 있고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는 행운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존중해주는 것이 주는 것의 형태가 아니라 받는 것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슬로건: 자난하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인 동시에 카란하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도 되어서 무력한 영혼들에게 경험의 성스러운 공양물을 계속해서 나눠줘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